

21세기 참여와 상생의 시민 사회를 위한 도전 성공회대학교

양 권 석 | 성공회대 부총장

1. 교육이념 : 참여와 상생의 더불어 숲 공동체

인간화, 사회화, 민주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성공회대학교는 열림·나눔·섬김의 교육이념을 인간화, 사회화, 민주화라는 세부화된 교육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간화' 교육을 통해 차별보다는 존중을, 편견보다는 이해를, 개체적 분열보다는 통합적 일치를 이룰 수 있는 태도와 지식 그리고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시대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으며, 사회와 세계의 변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주변 세계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 능력과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가치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민주화란 민주주의의 실현, 즉 인간의 사회화와 사회의 인간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으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전통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민족적 주체화를 지향하면서 편협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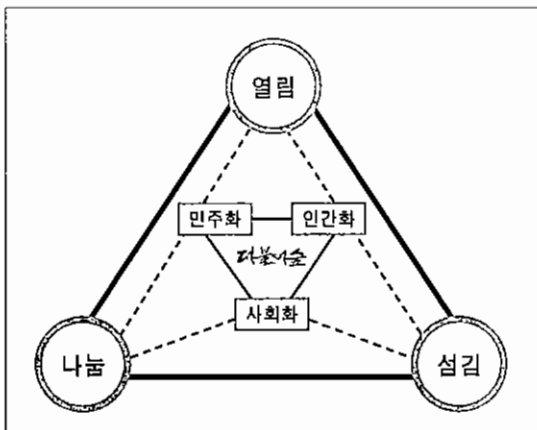
않은 지구촌 시민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의 개방화를 동시에 지향하는 교육, 역사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안목과 비판력을 갖추는 교육, 그리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 사회봉사와 사회복지의 의지가 녹아난 교육을 통하여 민주화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하여 인간다운 인간, 사회다운 사회를 가꾸는 이 시대의 비판적 일꾼을 만드는 것이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이다.

더불어 숲의 희망

열림·나눔·섬김의 이념으로 인간화, 사회화, 민주화의

(교육이념 체계도)



교육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성공회대학교의 희망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의지하기 보다는 열 사람의 동반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더불어 숲의 세계이다.

2. 현재적 실천 : 참여와 상생의 세계를 향한 도전들

참여하고 봉사하는 대학

성공회대학교는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봉사의 대학을 지향하면서 교수와 학생은 물론이요, 직원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1995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사회봉사 및 교육을 총괄 지도하는 사회봉사위원회와 사회봉사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회봉사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대학공동체의 전체 구성원이 사회봉사의 이론 학습과 실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회봉사 교과목은 사회봉사 I·II·III의 세단계로 편성되어 있고, 사회봉사I은 교양필수이다. 매단계는 4주간의 이론과정과 10주간의 봉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대 5학점까지 사회봉사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교과목 이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고무·격려하고 있다. 매년 졸업식 때는 사회봉사

활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사회봉사상을 시상함으로써 졸업 이후 사회에 진출해서도 이웃과 더불어 서로 섬기며 나눔과 봉사의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성공회대, 사회봉사 우수학생 표창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노동일보) 박성국 기자 = 최근 대학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한 학생에게 특례입학제관 적용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회대가 3년째 졸업식 때 사회봉사 활동 우수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성공회대는 17일 오전 '99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이윤희(사회복지학과), 임진희(사회학과) 이근욱(신문방송학과)씨 등 3명에게 '사회봉사상'을 수여했다. 교내 사진동아리 '마실보기'의 대표로 사진 찍기가 취미인 이근욱씨는 구로와 인천, 강화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영정사진 찍어드리기'라는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기획, 진행해 각종 매스컴에 실리는 등 모교의 사회봉사 이미지를 널리 알렸다.(중략)

이윤희씨는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부천해림원, 서울자유의 집, 남양주교회 살림의 집 등 헐벗고 소외받는 장애인들과 노숙자들을 위해 400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쳤다.(중략)

노동단체에서 일하고 싶다는 임진희씨는 시민 권익을 비롯, 노동, 남북문제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봉사도 하고 경험의 폭도 넓혔다.



성공회대는 '열린, 나눔, 섬김이라는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 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다며 사회봉사정보센터를 설치, 학생들의 봉사 실적을 전산입력하고 있으며 '95년부터 교양과목으로 사회봉사론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인권과 평화의 대학

성공회대학교의 또다른 교육적 화두는 '인권과 평화' 명제이다. 한때는 인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었던 시대가 있었다. 반대로 요즘은 세상이 바뀐 상황에서 너무 식상한 주제라고 하거나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권과 평화의 문제를 현실적 문제로 규정하며 인권과 평화야말로 '미래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윤리규범'이라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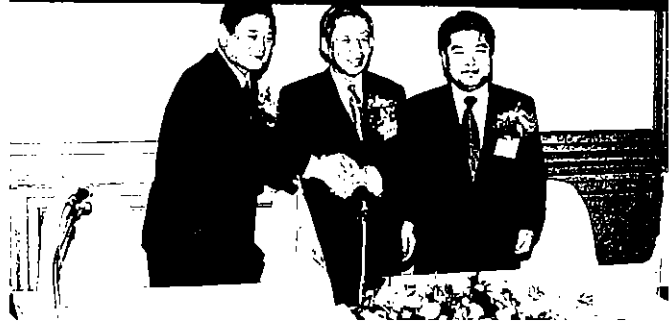
이러한 판단에서 성공회대학교는 지난 1995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권과 평화' 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어 인권과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과목(지구촌 사회와 인권, NGO와 한국사회운동, 민족·인종·평화, 국제 인권법 강좌, 인권과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실제 등)을 개설하고 교양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인권과 평화에 대한 시각 정립에 힘쓰고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를 초청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인권과 평화 콜로키움(아시아와 인권 강좌, 인권으로서의 사회복지, 여성과 인권 강좌)을 시도하고 인권평화위원회와 인권평화연구소(현재 사회문화연구소의 인권평화연구실로 개편)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시화된 바 있다. 이외에도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강사연봉제 도입(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 양심수자녀 특별전형(2002년도 시행), 평교수 교무위원 위촉(1999년 시행)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문제를 대학내의 제도와 강단을 통해 제기하고, 이어 학생들이 사

상지대 · 성공회대 · 한신대 건소시업 협정 조인식 및 기념식

99년 11월 19일(금) 11:00~16:00 장소: 프라자 호



회에 나가서 인권과 평화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화 운동자료실 대학내에 설치하여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민주운동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시간강사 연봉제 시대(조선일보 1999년 3월 31일)

성공회대(총장 이재정)가 대학 최초로 '강사연봉제'를 도입했다. 성공회대는 이번 학기부터 시간강사에게 방학중에도 연구비를 지급하고, 시간강사에게 '외래교수'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공회대 강사들은 방학중에도 매달 24만원씩 연구비를 받게 된다.<생략>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참여와 상생의 새시대를 준비하는 대학 세 천년 민주사회의 꿈은 시민사회의 발전과 성숙을 통해서 온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 위에 성공회대학교는 시민사회 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새시대를 준비하는 대학이 되고자 한다.

1999년 국내 대학에서는 최초로 우리 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에 시민사회단체(NGO)학과를 개설했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비주류권으로 경시되고 탄압의 대상이었던 시민사회 운동을 기성 학문적 체계에 편입시킨 동시에 민주사회로 한걸음 진일보 시킨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열림·나눔·섬김의 대학교육 이념을 실천(생활) 현장으로 구체화시킨 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기존의 시민사회단체(NGO)에서 활동가들의 재교육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던 만큼 시민사회단체(NGO)학과의 설립은 여러 시민운동 단체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에도 세시대 새로운 공동체와 인간성을 추구하는 시민사회 운동의 요구들에 부응하여 시민사회복지대학 원내에 협동조합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운동기구와 구체적 협정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다.

환경운동연-성공회대 상호협력협정체결
(조선일보 1998년 11월 14일)

시민단체와 대학간의 교류협정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학기부터 시민운동을 하는 실무진들이 대학 강단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중략> 양측은 협정식을 통해 대학생들의 환경봉사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환경과 사회' 등 환경관련 과목을 개설, 환경운동연합과 대학측이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교수와 환경운동연합 회원과의 공동 세미나 개최, 공동 프로젝트 추진, 일회용 컵 사용 안하기 운동 등 공동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3. 새시대 새로운 대학을 향한 계획

민주적 의사소통과 투명한 운영

다양한 대학내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대학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대학 정책에 여러 의견을 참여시키고자 함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대학을 발전·변형시키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성공회대학교는 대학내 소통구조의 원활함을 통해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외감을 방지하고 있다. 이는 성공회대학교 교육선언에서 밝힌 것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 줄 아는 열명의 사람'의 교육정신이 그 기저이다. 이러한 대학의 제도적 민주화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사항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중이다.

평교수 교무위원 위촉-성공회대, 개혁드라이브
(한국대학신문 1999년 3월 8일자)

성공회대가 국내대학 최초로 교무위원회 위원으로 평교수를 위촉하고 강사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대학개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성공회대는 최근 대학 최고 의결기구인 교무위원회에 무보직 평교수 4명을 교무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교무위원회 위원으로 평교수가 위촉되기는 대학 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회대학교 교육선언(1998년 4월 10일 제정 공포)

... 성공회대학교는 열림, 나눔, 섬김의 전당입니다.

... 성공회대학교는 생각을 열고 삶을 열어 가는 희망의 터전입니다. 나 자신을 열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품성을 키우고 겹겹의 울타리에 갇힌 우리 사회의 관심올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열어줍니다. 나아가 우리 시대의 달한 가치를 새로운 시대의 가치로 열어 가는 선구적 정신을 연마하는 전당입니다.

... 성공회대학교는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터입니다. 나에게 깊이 들어와 있는 너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를 만들어내는 도장

입니다. 한 개 속에 담긴 열 개를 생각하고 열 개 속에 놓여 있는 한 개를 잊지 않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생명은 자연과 사람이 서로 나누는 것이며 사랑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나눌 때 비로소 커지는 것임을 깨닫는 봉사의 자세를 길러줍니다. 그리하여 나눔이 곧 만남임을 확인하는 공동체의 너른 미당입니다.

... 성공회대학교는 나를 섬기고 나아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랑의 집입니다. 스스로가 주인임을 깨닫고 남도 스스로의 주인임을 존중합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섬기는 사랑임을 약속합니다. 내가 남을 섬길 때 비로소 내가 섬김을 받게 됨을 알고 오늘의 아픈 현실을 섬길 때 비로소 내일의 기쁜 소

일이다.(중략) 성공회대의 이번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의 강화

성공회대학교는 '세계성공회대학협의회'의 회원이다. 세계성공회대학협의회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와 일본의 모모야마대학, 릿쿄대학, 캐나다의 토론토대학 등 세계 160여 개의 우수한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학간 국제 협력채증 가장 규모있는 조직이다. 1999년 세계성공회대학협의회 총회를 통해 세계 성공회대학들은 인터넷을 통한 상호 강의 교류, 교직원간의 연대 등을 협의한 바 있다.

성공회대학교는 이외에도 미국에 이어 세계 소프트웨어 2위 국가인 인도와 관련하여 인도 윈도우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본교 학생들을 인도 현지에 직접 파견,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국내 대학들 사이에 처음 시행되는 현지 파견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인도에서의 교육과정을 대학내 교육과정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실시된 1년간의 기간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들과도 연계된 것이 우리 대학의 7+1제도이다. 대학과정의 총 8학기중 한학기는 현장과 연계된 실습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학과

는 현장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실습으로, 사회과학부의 경우에는 기성 시민사회단체(NGO)에서 현장성 있는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신문방송학과는 언론 매체를 비롯해 각종 기획사 등에서 현장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는 향후 우리 대학의 전체 학과와 학제에 폭넓게 적용될 계획이다.



망이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나와 너,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든 생명들을 섬기는 진정한 사랑의 품입니다.

... 성공회대학교는 많은 노력으로 오히려 적은 것을 얻으려는 겸손함을 기르고, 선량하나 무력하지 않은 사람, 유능하나 오만하지 않은 사람, 기쁨을 주고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일으며 세웁니다. 가장 큰 기쁨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은 훌륭한 사람이며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룩하는 역사임을 깨닫습니다.

... 성공회대학교는 우리 것을 사랑하는 주체성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조화시켜 갑니다. 인권과 평화를 존

중하며, 우리를 가두고 우리 사이를 가르는 모든 벽들에 대하여 꾸준하면서도 단호한 의지를 버리어 나가는 자유와 해방의 뜨거운 열정을 달구어냅니다.

... 성공회대학교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길러내기보다는 열 사람의 동반자를 양성합니다. 결코 앞서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반의 역량을 기릅니다.

... 그리하여 성공회대학교는 새시대의 새로운 대학을 지향합니다.

... 그리하여 성공회대학교는 가장 앞서가는 대학을 지향합니다.

4. 성공회대학교 역사

1914. 4. 30 인천강화에서 성미카엘 신학원 개교
1965. 4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TS) 창립회원으로 참여
1994. 7. 25 연세대학교와 협력 대학관계 위한 조인 체결
1994. 9. 1 성공회대학교로 교명 변경(종합대학교 체제로 출범)
1995. 세계성공회대학협의회에 회원교 가입
- 1996.11. 1 미국 버틀리 CDSP와 양교간 협력관계 조인, 목회신학박사 학위과정 공동 운영
- 1997.11. 27 일본 풀학원대학 협력관계 조인
1998. 3. 10 일본 모모야마대학 국제센터와 학술, 교육, 교류협정 체결, 일본 잇쿄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1998. 5. 15 성공회대학교-구로구청간 교류협력 협정식
- 1998.11. 11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친화대학 협정 체결
1999. 3. 1 국내 대학 최초로 강사연봉제 실시
1999. 9. 1 벤처기업 미디어링크와 산학협동 체결
- 1999.10. 29 유한킴벌리와 산학협동 체결
- 1999.11. 19 성공회대, 상지대, 한신대간 민주대학 컨소시엄 구성
2000. 2. 17 인도 윈도우 프로젝트에 따라 기술정보 해외교육과정 1기생 발대식과 현지파견
2000. 3. 현재 7개 학과와 2개 학부인 대학과 5개 대학원이 개설중에 있음. **▶▶▶**